

생활문화 향상에 공헌하는 국제적 일류기업 목표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최고의 품질 인정받아

斗山유리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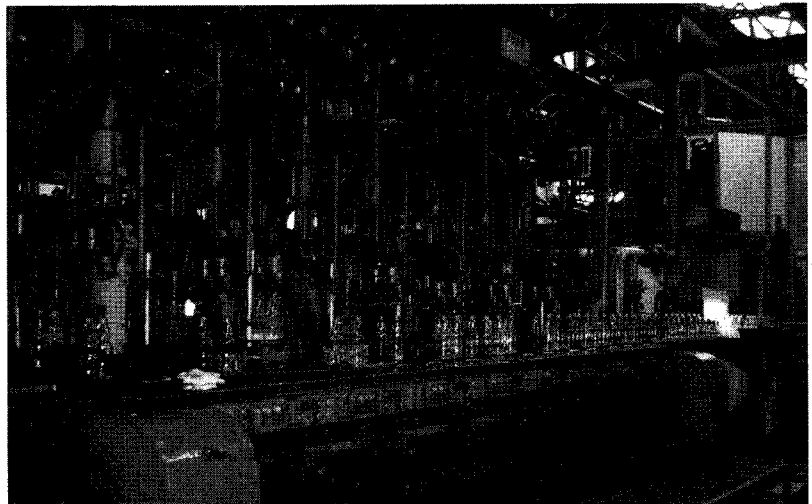
- 1956. 2 ICA 자금(\$335,000)으로 해남초자공업(주) 설립
- 1962. 9 대한유리공업(주)로 상호 변경
- 1975. 10 영남공장 제1로 준공(연간 생산능력 30,000톤)
- 1976. 11 두산그룹에서 대한유리공업(주) 경영권 인수
- 1979. 1 한국병유리(주) 흡수·합병, 두산유리(주)로 상호 변경
- 1980. 4 군산공장 12로 준공(연간 생산능력 120,000톤)
- 1981. 1 두산산업(주)로부터 광주 크리스탈공장 인수
- 1984. 5 미국 OWENS ILLINOIS INC와 기술제휴
- 1985. 4 PET용기 및 상자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 취득
- 1987. 6 군포 PET공장 준공
- 1987. 11 제13회 품질관리대상 수상
- 1989. 1 일본 통산성으로부터 특수용기 생산업체로 지정
- 1990. 5 파키크리스탈 GDMark 획득
- 1991. 3 (주)일화 화성공장 인수
- 1991. 4 크리스탈제품 국내최초 KS 획득
- 1992. 5 플라스틱 팔레트 생산개시
- 1994. 4 플라스틱 팔레트 KS표시허가 취득
- 1994. 6 인도 La Opala Glass와 Crystal제품제조기술 수출계약
- 1994. 9 품질경영 100선 선정
- 1994. 12 환경관리 모범업소 지정(군포, 광주, 미산 공장) ISO 9002 인증 취득
- 1995. 3 혁신활동 추진사례 통상사업부장관상 수상 시화공장 준공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창업 100주년을 맞이하는 두산그룹을 국내의 우수한 대기업들과 비교해 본다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튀지않는 움직임으로 사회·경제 곳곳에서 그 세를 확장해가는 묵직한 무게를 가진 그룹이라는 점이 바로 두산그룹만의 차별성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신뢰의 무게로 성장해 온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유리(주)는 1956년 설립 이래 줄곧 국내 유리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그 위치를 고수해 오고 있다.

두산유리(주)는 현재 국내 유리병 생산량 중 4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군산·군포 등 전국 각지에 7개의 사업장을 갖추고 유리병을 필두로 하여 유리식기, 크리스탈, PET용기, 플라스틱 팔레트 등의 생산에도 주력해 종합포장회사로의 점진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기존 영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2년 3월에 충북 음성에 PET 통합공장을 준공하여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기도 시화공단에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식기 통합공장을 건설하는 등



▲ 백색병을 생산하고 있는 군포공장의 유리병 생산라인

사업다각화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94년 5월 1일부터 그룹과 연계하여 전 사업장을 환경교육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두산유리(주)는 군포공장에 94년 8월 폐유리 재활용센타를 준공·개방하였고 광주 크리스탈 공장에는 폐수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공정내에 재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94년 10월에는 플라스틱 부문의 '재활용 다층 시트'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국산 신기술마크인 KT마크를 수상하는 등 원가절감 및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경영합리화만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두산유리(주)는 80년대 초반부터 TQM활동을 추진하여 87년에는 품질관리대상을 수상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4시간 풀가동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관리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그동안 개선활동에서 도외시되었던 사무

부문에 대해서도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의 체질강화 및 건전한 기업문화조성을 목표로 93년부터 2001년까지 사무부문 및 생산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도약 2000운동'이라는 경영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혁신활동을 통해 1차적으로 사무실 인원의 20%에 달하는 83명이 전략적인 업무에 재배치되었고 불용불급품 감소, 생산성 향상 등 경영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작업 환경이 좋아지고 활동 이후 산업재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혁신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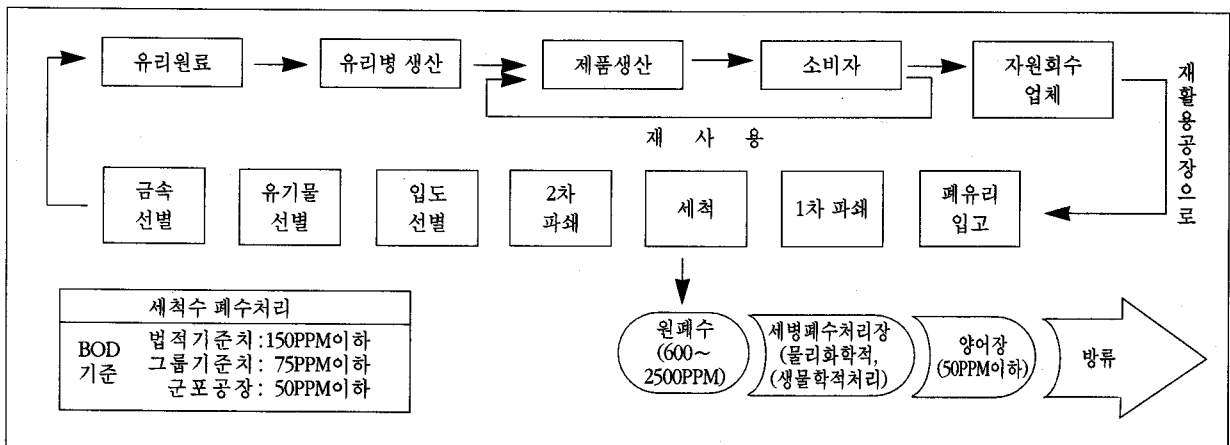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회사와 사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력제품인 유리병은 지금까지 제품의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이 많지 않았고 불과 3년전까지만 해도 크리스탈 제품이 수출되었을 뿐 다른 품목의 수출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그러나 93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전개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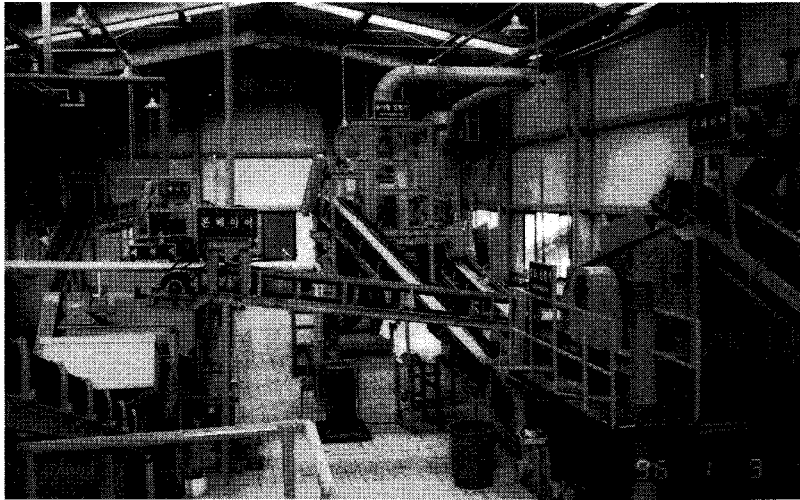
품질검사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 병을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대만, 홍콩에는 PET병, 플라스틱 팔레트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94년 인도에 크리스탈 제조 기술을 로얄티를 받고 수출함으로써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없이 발전하고 있는 두산유리(주)의 저력은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술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의 결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란 두산그룹의 경영 이념 중 '인재는 우리의 보배'란 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말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단정지은 것이며 두산유리(주)는 사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질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는 그룹과 연계하여 매년 30여명의 사원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배낭여행을 50여명씩 보내어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사내적으로는 '글래스스쿨'이라는 전문과정을 개설하

〔표 1〕 유리병 재활용 공정





▲ 94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재활용공장의 재활용 공정 라인(군포공장)

여 회사에서 개발하고 익힌 기술을 전 사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회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경영혁신팀의 은 건상 대리는 “직장은 또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의 1/3이상을 생활하게 되는 직장에서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교육과 자기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저희 두산유리(주)는 사원들에게 평생동안 교육을 받고 평생의 안정을 보장받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원들 역시도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연결시켜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라며 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두산유리(주)의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활발한 사내 동호인 클럽을 들 수 있다. 17년 이력의 야구팀을 비롯해 스킨스쿠버 다이빙회, 사진반·남시반·볼링반 등 동호인 클럽의 구성

원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과 애사심을 키우는 동시에 작업능률을 최대화하는데 일조했다.

국내 유리병업계는 95년부터 일부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다운시키는 등 공급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유리식기 및 크리스탈 시장 역시 저가제품의 수입증가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유리병은 제품자체가 지닌 완벽한 차단성, 미려한 외관, 뛰어난 보존성 등의 특성으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포장용기 중에서 유일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가장 높은 재활용율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95년 총 18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두산유리(주)는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기술수출 및 합작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한국유리시절인 73년에 설계과로 출발한 두

산유리 기술연구소는 이후 꾸준히 조직을 확대하여 축적된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자립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소재개발팀을 신설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국내 최대의 종합포장회사로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한국기네스협회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으로 인정받은 두산그룹은 ‘전통과 안정’으로 지난 100년을 지켜왔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초일류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뛰는 두산(개인)’·‘크는 두산(사내)’·‘열린 두산(사외)’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시스템을 첨단화하면서 동시에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 일류의 상품들과 국내외에서 경쟁하고 있다. 또한 사업거점의 세계화를 위해 상사기능의 강화를 통해 세계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두산의 직원들은 저력과 끈기가 있다”라는 자신감에 찬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유리병생산업체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인터뷰 - 두산유리(주) 대표이사 백준기

두산유리1호 평사원에서 대표이사로

신바람나게 일하는 열린 일터 만들 계획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세대들의 것으로 대변되는 현 사회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개인의 손익을 따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의무감을 뒤로 하는 세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에 대한 긍지로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이 참으로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한양대학교



▲ 백준기 대표이사

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69년 입사, 79년 한국병유리(주)를 흡수·합병하며 그 상호를 가지게 된 두산유리(주)의 공식 1호 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백준기 사장은 25년간 유리병 기술발전과 회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향을 뒤엎은 참능력을 지닌 알짜배기 사장이다. 지난 94년 12월 전무이사의 자리에서 2계급 특진으로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된 백 사장은 지난 12월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인적인 시간까지 쪼개어 생산 현장 직원들을 둘러보는 데 투자할 정도로 유대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실 현장 실무자에서 출발한 사원들 중에서 운이 좋아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고 경영실적도 올리고 질높은 경영으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회사를 만들어야 겠지요. 이렇게 하려면 전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최고 경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으니 이를 얼마만큼 잘 조화해 내느냐가 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냈을 때 제가 추구하는 신바람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지요”라며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사장에서 말단 직원까지 격이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열린 일터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힌 백 사장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단기간에 혁신적인 기술향상을 이루어낸 데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또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어려운 상황이나 최상의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여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100년 가까이 된 미국의 오웬스 브록크웨이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유리(주)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올 96년을 전통을 바탕으로 사원 개개인의 혁신적인 의식과 불굴의 투지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백 사장의 단호한 한마디가 다른 이들의 말보다 더 많은 믿음을 담고 다가오는 것은 유리병과 함께 25년여를 지내온 그의 인생이, 참된 삶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

윤지은 기자